

9 [필로칼리아]

여러 저자

- [필로칼리아]는 기독교 영성 실천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한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주로 고대 그리스정교에서 나온 자료가 들어 있다.
- 영적 지식은 기도, 깊은 정적, 완벽한 초탈로부터 오고, 지혜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부터 온다.
- 필로칼리아라는 제목은 ‘아름다움, 거룩함, 숭고함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필로칼리아는 동방정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필로칼리아는 성경을 올바르게 보게 해주는 확대경이다.
-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키기 위하여, 성자는 성부의 소원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의도적으로 그 몸을 죽음에 내맡겼다.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열정에 따른 불명예를 대신 짊어지기로 승낙하신 것이다. 그와 똑 같은 이치로, 그분은 그 자신의 아름다운 신성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 성 막시모스
- 테오시스(성화)는 은총의 선물이며 성 막시모스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영원에 공유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은총에 의한 테오시스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재구성되고 그 영원성을 획득한다. 우리의 성화와 구원의 주도권이 하느님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반응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 성경은 빛나는 태양이고, [필로칼리아]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유리다.
- 기도는 우리의 신체적 자세나 지위와는 무관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활방식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도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면과 경계, 끈기, 영혼의 갈등과 신체의 분투 등을 앞세워 싸워야 한다.
- [필로칼리아]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다. 특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간청하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라고 요청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성에 신경을 쓰면서 겸손과 경계를 아우르고, 기도에서 사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힘을 섞는다면, 우리는 참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 [필로칼리아]는 해시키아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 단어는 정적 혹은 편정으로 번역된다. 해시키아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바람직한 결과다. 다마스코스의 성 베드로는 정적을 가리켜 “ 모든 세속적 근심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했다.

-